

I. 화순 역사 이해

한눈에 보는 화순 역사

화순 지역 최초의 왕국은 무엇일까?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철기 시대에 삼한 소국들이 형성되는데, 능주면 일대는 마한 54개 소국 중 하나인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혹은 내비리국(內卑離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시대부터 지금의 화순읍·능주면·동북면 일대에 현과 군이 설치되는데, 화순읍 지역에는 잉리아현(仍利阿縣), 능주면 지역에는 이릉부리군(爾陵夫里郡), 동북면 지역에는 두부지현(豆夫只縣)이 설치된다. 화순군은 이들 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여미현이 화순현이 되었고, 능성군의 속현인 부리현이 복성현(福城縣)으로 이름이 바뀐다. 1018년(현종 9)에는 복성현(동북현)이 보성군에 속하게 되고, 능성군이 능성현으로 바뀌면서 나주목의 속현으로 강등된다. 인종 21년에는 능성현에 현령이 파견되었고, 지금의 나주 봉황면 일대의 철야현을 관장하게 된다. 능성은 지금 능주의 옛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화순현, 능주현, 동북현의 3개 군현이 독립된 행정구역과 통치체제를 유지하지만 3개 지역 세력들의 우위권 다툼으로 잦은 행정 변천을 보이기도 했다. 1632년(인조 10)에는 능성현이 능주목으로 승격되지만, 1896년 화순군·능주군·동북군 3개 지역을 합해 화순군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후 능주군과 화순군 사이에 분리 또는 통폐합이 이루어지다가 최종적으로 화순군으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화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되다

화순 지역의 구석기 유적은 동북천과 지식천 일대 30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남면 대전유적과 한천면 도산유적, 춘양면 사창 유적 등이다. 이들 유적에서 나온 유물의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년에서 5만년 전 사이의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화순지역에서는 적어도 5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게 해준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다. 화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화순지역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고인돌이 있다. 발굴된 집자리는 능주면 백암리 등 4곳이며, 고인돌은 183곳에서 2,000여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를 상징하는 유물은 족장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인돌이다. 화순에서 확인된 2,000여 기의 고인돌은 동북천과 사평천이 합류하는 남면 일대, 지식천과 화순천이 합류하는 능주면·도곡면 일대, 화순천 하천가인 화순읍 일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중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은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화순에도 마한 소국이 있었다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마한의 54개 소국이 형성되었다. 당시 삼한 중 가장 강력했던 마한의 영역은 한강 이남 서남해안 일대였다. 2천년 전의 역사여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순에도 마한 소국이 존재했다. 능주면 일대에는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혹은 내비리국(內卑離國)이, 동북면 일대에는 벽비리국(辟卑離國)이 그것이다. 도암면 용강리와 화순읍 내평리 등에 남아 있는 유적과 무덤은 그 흔적이다.

마한이 백제에게 복속된 후 소국의 중심지였던 화순읍·능주면·동북면 지역에 각각 군과 현이 설치된다. 화순읍과 동면 일대에 잉리아현이, 능주·도곡·도암·춘양·이양·청풍·한천면 일대에 이릉부리군이, 동북면과 남면·북면 일대의 두부지현이 그것이다. 백제의 유적으로는 도곡면 효산리 모산 백제 돌방무덤 등 고분이 남아 있다.



쌍봉사 전경

통일신라시대 쌍봉사가 건립되다

신라가 백제를 통합한 후 757년(경덕왕 16), 이릉부리군은 능성군(陵城郡)으로 이름이 바뀐다. 능성은 이후 능주의 옛 이름이 된다. 또한 잉리아현은 여미현(汝湄縣)으로 고쳐 현재의 전라남도 보성군 북내면 일대인 부리현과 같이 능성군에 속하게 된다. 두부지현 역시 동북현으로 이름을 고쳐 곡성군에 속하게 된다. 현재의 화순 지역은 이처럼 3개의 서로 다른 세력권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신라의 삼국 통일과 함께 능성군 세력이 성장하여 화순 지역과 인접한 보성 지역 일부를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북 지역은 곡성 지역에 속해 있었다.

9세기 중엽 통일신라 시대 화순군 이양면에 선종 사찰 쌍봉사(雙峰寺)가 건립되었다. 쌍봉사는 철감선사 도운(道允, 798~868)이 건립한 사찰로 경내에 남아 있는 철감선사의 사리를 모신 승탑은 국보 제57호로 지정되어 있고, 철감선사 탑비는 보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려 시대, 운주사가 건립되다

화순 지역은 후삼국 시대가 되면서 전라도 지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세력하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고려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되자, 자연스럽게 고려에 속하게 된다.

940년(태조 23), 화순 지역 3개 군현의 이름과 관할 구역에 대한 재편이 다시 이루어진다. 여미현은 이름이 화순군으로 바뀌면서 나주목의 속현이 되었고, 능성군의 속현이었던 부리현은 복성현(福城縣)으로 이름이 바뀐다. 1018(현종 9)에는 복성현(동북현)이 보성군 관할로 소속이 바뀌게 되고, 능성군도 능성현으로 격하되면서 나주목의 속현으로 재편된다.

1143년(인종 21), 능성현에 처음으로 중앙에서 현령이 파견되었고, 나주에 하였던 봉황면 일대의 철야현을 관장하게 된다. 화순현에는 1390년(공양왕 2)에 지방관인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는데, 1394년 남평현이 분리 독립하기까지 남평현 감무를 겸하였다.

화순에도 군현 아래에 특수행정구역인 소(所)와 부곡(部曲)이 존재했다. 와천소와 품평소, 울촌 부곡이 그것이다. 와천소는 현재 북면 와천리로, 품평소는 이양면 품평리로 추정된다. 그리고 울촌 부곡은 청풍면 세청리 울촌 마을 부근으로 추정된다. 소와 부곡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인접 군현에 편입되면서 소멸된다.

고려시대 화순에 건립된 대표적인 절작은 건립 시점, 건립 주체가 미스터리인 천불과 천탑이 있는 운주사(雲住寺)다.



운주사 와불

조광조, 화순 능주에 유배오다

조선 건국 후 지방 편제는 고려의 속현이나 향·소·부곡 등 복잡한 행정체계가 군현 편제로 일원화된다. 군현 편제는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변동 없이 1895년(고종 32)의 군현 개편 때까지 이어진다. 화순 지역도 화순현·능주목·동북현의 3개 군현이 독립된 행정구역과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화순현과 능주목·동북현 그리고 남평현까지를 아우른 합병과 분리·독립과정을 겪는다.

1394년(태조 3)에는 화순현에 포함되었던 남평현이 화순현에서 분리되었고, 1396(태조 5)에는 동북현 감무가 화순현을 겸임하다 1405년(태종 5)에는 동북현이 폐지되고 화순현에 합쳐져서 동북현의 감무를 화순현으로 옮기게 된다. 1407년(태종 7)에는 동북현과

화순현을 합쳐 북순현(福順縣)으로 이름을 바꾼다.

1415년(태종 15)에는 능성현에 속했던 철야현이 남평현에 편입되었고, 1416년(태종 16)에는 다시 동북현이 화순현에서 분리 독립되어 동북현에만 현감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때 화순현은 능성현에 합쳐져 순성현(順城縣)으로 이름이 바뀐다. 1418년(태종 18)에는 순성현이 다시 화순현과 능성현으로 분리되어 각각 현감이 파견된다. 세종 때에는 화순과 능성은 합해졌다가 다시 분리되는 변화를 겪는다.

화순 지역이 기본적으로 3개의 행정구역이었음은 향교 설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392년(태조 1) 능주향교, 1434년(세종 16) 화순향교, 1445년(세종 27) 동북향교가 건립된다. 화순 지역에서 이루어진 군현 재편과정은 3개 지역 지방 세력들의 우위권 확보 다툼과 관련이 있다.

화순 지역은 기묘사화 여파로 조광조(趙光祖)가 유배되어 오면서 큰 영향을 받는다. 화순 지역의 유학 발전에 직접 기여한 인물로는 기묘사화로 동북 지역에 유배된 최산두(崔山斗)와 화순 이양 출신인 양팽손(梁彭孫) 등을 들 수 있다. 선조 때에는 기축옥사가 일어나면서 조대중(曹大中)을 비롯하여 화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화순 지역의 호구와 주요 성씨는 1473년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화순현의 인구는 209호 615명, 토성(土姓)으로는 배(裴)·최(崔)·오(吳)·윤(尹)·하(河)씨 등이었다. 능성현은 136호 763명, 토성은 구(具)·정(鄭)·문(文)·조(曹)·채(蔡)·주(周)씨였고, 동북현은 90호 289명인데 토성은 오(吳)·성(成)·박(朴)·선(宣)·지(池) 등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화순 지역의 의병활동은 최경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최경운·최경장·최경희 3형제와 문홍원 등 수많은 의병들이 거병하여 진주성 전투 등에서 싸웠다. 정유재란 때에는 최경운 등을 주축으로 한 의병이 오성산성에서 왜적과 격전을 치렀고, 병

자호란 때에도 조수성 등 많은 의병들이 창의하였다.



조광조 적려유허지 전경



조광조적려유허비

능주, 목사가 다스리는 목사골이 되다

임진왜란의 여파로 화순 지역의 군현 편제는 다시 격변을 겪는다. 1597년(선조 30)에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세력이 약화된 화순현이 지역민의 민원에 의해 능성현으로 합쳐졌다가, 1611년(광해군 3)에 다시 화순현으로 분리되었다. 1632년(인조 10)에는 능성현이 능주목으로 승격된다. 능성현이 능주목으로 승격될 수 있었던 것은 능성현이 인조의 모후인 인현왕후 구씨 시조의 관향(貫鄉)이었기 때문이었다. 능주목으로 승격되면서 목사가 부임하였고, 1895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후기 화순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1759년(영조 35)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보면 능주목의 호구와 인구는 각각 5,033호, 1만 9,650명이었다. 화순현은 1,715호, 5,777명이었고, 동북현은 2,106호, 7,393명이었다. 능주목의 호구와 인구는 화순현과 동북현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조선 시대 교통은 역원제였다. 역(驛)은 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원(院)은 역에 딸린 여관이였다. 화순 지역에는 가림역, 인물역, 검부역이 있었다. 가림역은 화순현 남쪽 12리(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에 위치했으며, 전라좌도의 경양역(현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에 딸린 역이었다. 인물역은 능성현 남쪽 25리(현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금릉리 인물 마을)에 있었고, 김부역은 동북현 동쪽 5리(현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한천리)에 위치했다.

조선 후기 화순은 실학의 산실이기도 했다. 실학자 나경적과 하백원이 화순에서 태어나 실사구시의 학문을 했기 때문이다. 나경적(羅景積, 1690~1762)은 혼천의·자명종·수차 등의 천문 관측기구와 생활 과학 기구 등을 발명하여 홍대용 등에 영향을 끼쳤다. 하백원(河百源, 1781~1844)도 지도 제작, 천문 역법 연구뿐만 아니라 자명종 제작, 수차 설계 등 과학 기술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다.



죽수절제야문(옛 능주목 관아 동헌 출입문)

1914년, 오늘의 화순군 영역을 확보하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지방 관제가 대폭 개편되면서 화순 지역은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된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전국 8도를 23부제로 개편하면서 화순군, 능주군, 동북군으로 각각 개편되어 나주부에 속하였는데, 1895년 9월 칙령 제164호로 능주군은 3등군, 화순군과 동북군은 4등군이 된다.

1896년 8월에 다시 지방 관제가 13도 체제로 바뀔에 따라 능주군과 동북군이 폐지되어 전라남도 화순군이 된다. 그러다가 1908년 10월 칙령 제72호에 의하여 화순군이 폐지되고 능주군에 병합되어 동북군과 함께 2군이 되었다. 1913년 능주군은 다시 화순군으로 이름이 바뀐다.

1914년에는 기존의 면리체제에 대해 대대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 1914년 3월 부령 제111호에 의해 동북군 7개면과 남평군 2개면의 일부 리, 광주군·장평군에 속한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화순군이라 하고 총 17면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때 지금의 화순군과 거의 같은 영역을 갖추게 된다.

일제 강점기 화순 지역에서는 의병과 항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06년 최익현의 의병군에 화순 출신의 문달환(文達煥, 1851~1938)과 양재해(梁在海, 1854~1907) 등이 참여하였으며, 1907년에는 양회일(梁會一, 1833~1908)이 이끈 쌍산의소의 의병들은 능주를 점령한 후 화순을 거쳐 광주로 진격하다 너릿재에서 일군과 격전을 벌였다. 1908년에는 화순 출신 이관회(李貫會, 1871~1910)가 안규홍 의병부대와 함께 보성군 문덕면 등지에서 큰 전과를 거둔다. 1919년 3·1운동 때는 양한묵(梁漢默, 1862~1919)이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3월 13일 능주 장터에서는 양회준 등이, 3월 15일 화순읍 인근의 야산인 갯무산에서는 조국현 등이, 3월 20일에는 동북 장터에서 오재인 등이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해방 직후의 화순, 좌우익의 격전장 되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 소식이 전해지자 화순 지역의 주요 인사들은 독립운동가 주재학의 집에 모여 적산 관리와 치안 유지 등을 논의했고, 그 흐름이 건국준비위원회 화순 지부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건국준비위원회 화순 지부는 10월 초 좌익 성향

의 인민위원회로 재편되었고, 이때부터 좌우익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5년 말부터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더욱 악화된다. 1946년 해방 1주년 기념행사 사건(일명 너릿재 사건)과 화순 탄광 파업 그리고 메이데이 사건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좌우익 갈등이었다.

화순 지역에서 좌우익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변모한 결정적 계기는 1948년 여수 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세력이 화순 지역의 험준한 산지로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좌익 세력은 화순군의 산악 지대를 은신처로 삼았고 이후 6·25 전쟁 중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과 지역 좌익이 다시 입산하면서 화순군의 산악 지대는 빨치산과 빨치산을 토벌하려는 군경의 첨예한 대치 장소가 된다. 본래 화순 지역은 좌익세력이 강한 곳은 아니었지만,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던 것은 화순 지역 면적의 70%에 차지하는 백아산과 모후산 등의 산지를 빨치산이 활동 거점으로 삼아 토벌의 강도가 커진 데 따른 결과였다. 화순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은 휴전 협정을 맺고도 2년이 지난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II. 화순을 빛낸 인물

1. 한말 화순 출신의 의병장, 양회일

1907년 화순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양회일(梁會一, 1856~1908)은 화순 능주에 유배 온 조광조의 시신을 거둔 양팽손의 후손으로, 본관은 제주(濟州)이며 자는 해심(海心), 호는 행사(杏史)이다. 1856년 화순 능주에서 태어난 후 1883년 화순군 이양면 쌍봉마을로 이사한다. 쌍봉마을은 지금 이양면 증리에 위치한 철감선사 승탑(국보 제57호)을 품은 쌍봉사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가세가 넉넉했던 그는 20대초, 서울을 오가며 과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1896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벼슬길을 접고 농사를 지으며 찾아오는 학동들에게 글을 가르친다.

1904년에는 향약을 운영하는 도약장(都約長)의 직임을 맡는다. 당시 각처에서 일어나는 도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방도대(防盜隊)를 조직하기도 했다. 1904~1905년에는 도둑들이 떼를 지어 일어났다. 도둑 수십 명이 양회일의 집에 들이닥치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 피했다. 이때 양회일은 “지금 민생이 도탄에 빠져 생계를 의탁할 길이 없다. 너희들도 춥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서로 몰려다니며 도둑질을 하겠지만, 어찌 그것이 너희들의 본심이겠는가?”라고 타이른 후 뜰 앞에다 큰 자리를 깔고 밥을 지어 먹이고 베 몇필을 내어주니, 도둑들이 감격하여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1905년 양회일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빼앗기자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할 마음을 굳힌다. 마음을 굳혔지만 노부모가 마음에 걸렸다. 이를 알아차린 부친 양재욱은 “동생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오직 의로움으로 왕사(王事)에 진력할 뿐 늙은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의 길을 열어준다.

부친의 뜻을 읽은 양회일은 가산을 정리하여 3천량의 거의 자금을 마련한다. 1906년 음력 10월이었다.

1907년, 양회일은 보성 북내면과 화순 이양면을 가르는 계당산 증동마을에 의병 본부인 쌍산의소(雙山義所)를 차린다. 화순은 물론 보성과 정읍, 남원과 구례 등지에서 2백여 명이 모여들자 부대를 편성했다. 부장에는 신재의, 선봉장에는 이광선, 중군장에는 임창모, 후군장에는 노응현, 도포장에는 유화국, 총무에는 양열목이 임명된다.

1907년 3월 9일, 양회일은 「서고 군중문(誓告軍中文)」을 발표하여 동지들이 합심하여 이완용 등 5적을 섬멸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여 국가의 수치를 갚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5조를 발표한다. 양회일이 이끈 쌍산의소의 의병들은 4월 22일 능주의 관아와 주재소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리고 이어 화순을 점령한다. 화순 관아를 비롯하여 주사청(主事廳), 우편소(郵便所), 경무서(警務署), 일본인 상가(商家) 등을 공격한다. 그리고 양총과 탄약 등 무기류를 노획하고 전신주를 파괴하고 전선을 잘라 버렸다.

다음 목표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였다. 광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너릿재를 넘어야 했다. 일군과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의병들은 화순과 동북 사이의 도마치 고개 아래 민가에서 밤을 지낸다.



의병장 양선생 회일 비

아침을 준비하는데 일군이 들이닥쳐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양회일은 선봉장 이광선에게 셋길로 빠져나가 후일을 기약하라 명령한 후 일군에게 외친다. “나를 죽여라, 내가 맹주다.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라.” 일군은 양회일을 사로잡기 위해 총성을 멈추었고, 중군장 임창모를 비롯한 5명의 부장들이 양회일을 에워쌌다.

이 전투에서 화순 출신의 정세현이 운명했고, 양회일을 비롯한 임창모, 안찬재, 유태경, 선태환, 이백래, 김대현 등은 체포된다. 이 중 김대현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또 옥중에서 순국한다.

양회일은 1907년 7월 재판장에서 그는 당당하게 거사의 뜻을 밝힌다. 그가 남긴 『행사실기(杏史實記)』에는 “너희는 승냥이와 이리보다 못한 놈들이다. 국모를 시해하고 임금을 협박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은 한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적이다. 내가 장차 이토 히로부미의 목을 베고, 오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고자 했는데, 의는 크고 병사가 적어 이런 처지에 이르렀다. 비록 절의만으로 일어났지만 장차 지혜와 용기있는 용사들이 많이 나와 치욕을 갚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회일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5년의 유배형을 받고 목포 앞의 섬, 지도(智島)에 유배된다. 1907년 12월, 순종의 즉위 은사(恩赦)로 풀려나지만, 일제는 1908년 5월 이백래가 주도한 호남 창의소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된다. 강진헌병대로 끌려간 양회일은 다음 달 장흥헌병대로 이관된 후 밥 한 톨까지 거부하며 항거하다 곡기를 끊은 지 일주일만에 “너희가 천하의 의사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다. 1908년 6월 24일(음력)이었다. 양회일의 무덤은 화순군 이양면 쌍봉 마을 앞산에 있다. 찾아가는 길이 다소 험하지만 나무로 만든 안내표지판이 군데군데 서 있어 찾아갈 수 있다. 그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묘비석에는 “대한 순국 의사 행사 양공지묘(大韓殉國義士杏史梁公之墓)”라고 새겨져 있

다.

그가 살았던 쌍봉마을 입구에는 1946년 건립된 ‘행사 양공 회일 순의비(杏史 梁公 會一 殉義碑)’ 2002년 건립된 ‘의병장 행사 양선생 회일 순의 기념비(義兵將 杏史 梁先生 會一 殉義 紀念碑)’가 서 있다.

정부는 그의 활동을 기리기 위해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 포장을 추서(追叙)한다.

그의 의병 활동은 그가 남긴 『행사실기(杏史實記)』에 남아 있다.



양회일 무덤

2. 호남 유일의 3·1운동 민족대표 양한묵



3·1운동 호남 유일의 민족대표 양한묵



민족대표 33인의 서명 광경

양한묵, 손병희를 만나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호남 유일의 인물이 양한묵이다. 양한묵(梁漢默, 1862~1919)은 1862년(철종 13) 해남군 옥천면 영계리에서 아버지 상태(相泰)와 어머니 낭주 최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제주이고, 자는 경조(景朝), 호는 지강(芝江)이다

전통적인 유학을 공부하였고, 18세 이후에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천주교와 음악술에 관한 서적을 널리 읽었다. 20세에 결혼하여 나주 남평면(南平面) 송촌(松村)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전국의 명산과 사찰을 돌면서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당시 피폐한 현실사회에 대한 인식도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92년 관직에 나아가 1894년에는 탁지부(度支部) 주사에 임명되어 능주세무관으로 부임하였으며, 1897년경 사직하였다. 양한묵이 화순과 맺은 인연이다. 그 뒤 베이징 등지를 유람하고 이듬해 일본의 국정과 세계 대세를 살피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개화운동을

추진하다 일본에 망명하여 있던 조희연·권동진·오세창 등과 교류하였다. 이들의 소개로 선생은 1902년경 이상현으로 이름을 바꾸고 돈 많은 장사꾼으로 지내던 동학의 교주 손병희를 만났다. 당시 손병희는 1901년 일본에 온 후 국내에서 동학 자제 24명을 데려오게 하여 교토의 부립 제1중학교에서 수학하게 하는 등 동학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양한묵은 손병희가 러·일전쟁의 상황을 이용하여 민회운동을 전개하려던 1904년 동학에 입교하였다. 이는 동학의 평등사상과 개혁사상에 공감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학세력의 힘을 이용하여 정치와 사회의 개혁을 이루려던 양한묵의 열망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교육으로 항일계몽운동을 전개하다

양한묵은 입헌군주정의 실시를 위한 헌정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05년 5월 중순 윤효정·이준 등과 함께 헌정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양한묵은 ‘헌정요의(憲政要義)’를 저술하여 1905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황성신문(皇城新聞)』에 연재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국가의 본의와 국가와 황실의 분별, 국가와 정부의 관계, 군주와 정부의 권한, 국민과 정부의 관계, 군주의 주권과 국민의 의무와 권리 등 국가학과 정치학의 기본적인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후 장지연, 나수연이 대한자강회로 이어받았다.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이 귀국한 뒤, 그는 다시 천도교 기반으로 한 계몽운동에 헌신한다. 1909년 천도교 법도사에 임명되어 천도교 교리서인 ‘대중정의’, ‘무체법경’ 등 약 20권의 교리서를 저술하였다. 그 중 ‘대중정의’라는 책에서 최초로 ‘인내천(人乃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손병희의 교육 운동에 적극 동조하여 보성전문학교, 보성중학교, 동덕여학교 등 근대 교육 기관의 인수와 경영에 참여했다.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하다

1919년 양한묵은 「오사카 마이니치신문」과 「경성일보」를 보고 미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접하고,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민족이 처리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마땅히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2월 20일 서울 돈의동에 있는 권동진(權東鎭)의 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큰일이 있다. 우리 조선을 위하여 매우 좋은 일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기쁜 일은 국권을 회복할 독립선언을 하려고 한다. 구주전란 평화회의에서 종래 속국인 각국은 전부 독립 자치를 용인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조선의 국권 회복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지금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하여 종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을 독립·자치케 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국권회복을 희망하는 한국인도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계획이 손병희·오세창·최린과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양한묵은 2월 23일 권동진의 집에서 기독교계, 불교계와 힘을 합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월 25일 다시 권동진의 집에서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검토하였다.

양한묵은 2월 27일 오후 4시 손병희의 비서인 김상규의 집에서 손병희, 이종일, 이종훈 등과 함께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제출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개최된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후 민족대표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독립선언식 직후 출동한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어 가혹한 고문을 동반한 심문을 받는 과정에도 그는 민족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양한문은 “조선이 이번 거사로 독립이 될 줄 알았느냐?”는 일본 검사의 질문에, “이번 거사로 독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한국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그의 당당한 답변은 더욱 가혹한 일경의 고문을 불러왔다. 감옥에서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는 면회온 아들에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는 쪽지를 보내어 가족의 근심을 덜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러나 56세의 노구가 일경의 고문을 감당하기는 무리였다. 그는 1919년 5월 26일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고 만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유일한 옥중 순국이었다. 순국 후 그는 서울 수철리(현 성동구 금호동)의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이후 1922년 5월 고향을 그리던 선생의 마음을 헤아려 천도교단이 주선하여 선생의 묘소를 전남 화순으로 반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3. 광주고보의 영원한 스승, 송홍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인 광주 일고 교정에 들어서면 왼쪽에 흉상이 서 있고, 왼쪽 끝자락에는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이 서 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피끓는 광주고보(현 광주일고) 학생들에게 오직 바른길인 독립만이 당시의 시대정신인 ‘생명’이었음을 가르친 송홍 선생이다.

송홍(宋鴻, 1872~1949)은 1872년 화순군 도암면 운월리에서 송용진의 2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익중(翼中), 호는 운인(雲人)이다. 구한말 큰 유학자였던 송병선에게 글을 배웠다.



송홍 선생 동상(광주일고 교정)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 승지 윤병, 전 군수 홍필주, 전 주사 이기 등과 함께 5차에 걸쳐 왕에게 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린다. 임금의 확답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전 참판 홍종영 등 5인과 함께 대한문 앞 광장에서 복합상소(伏閣上疏)를 하다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했다.

일본 헌병대에서 풀려난 송홍은 일제의 감시와 망국의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가 중국의 천진, 북경, 상해 등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열강들의 각축과 일제의 침략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은 힘을 쌓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후세에게 새로운 학문과 문물을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자신이 할 바를 깨달은 송홍은 1908년 귀국, 교육개혁 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그가 제기한 교육 개혁 방안의 핵심은 향교재단을 기금화하여 향교를 신식학교로 개편하고, 신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각 도에 사범 학교를 설치하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민 균담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개혁안은 향교를 존속시키고자 했던 유림들의 반발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송홍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그 자신만이라도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광주보통학교(현 광주서석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그 후 광주 농업학교, 사범학교로 옮긴다.

1919년 3월 1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송홍은 ‘동포에게 보내는 격문’을 지어 모든 조선인들이 분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호소했으나, 이후 일제의 체포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다. 1920년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고보)가 설립되자, 귀국해 다시 광주 고보 교단에 선다.

송홍이 담당한 과목은 한문과 국어(조선어)였다. 그런데 두 과목만이 아니었다. 한문 시간에는 비밀리에 한국 역사와 민족의 과제인 독립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했다. 광주고보 제1회 졸업생인 변진복은 “선생은 교장, 교감을 비롯한 학교 당국의 감시 눈길을 피해 수업 시간이면 칠판에 강의 제목만 써 놓고 한국 역사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세계정세 및 민족의 진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미래의 지표는 조국 광복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송홍이 제자들에게 일깨워 준 민족의식과 한국사 교육은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교사 송홍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제자들이 일본 경찰에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당시 송홍은 일제의 눈엣가시였다. 일본 교장은 그의 학교직원회의 참석을 막았을 뿐 아니라, 감시마저 강화하였다. 광주

학생독립운동으로 전교생에 가까운 학생들이 검거 수감되고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자 송홍은 병을 핑계로 장기 결근으로 항거했다. 결과는 일제의 강요에 의한 퇴직이었다. 그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학교 당국의 조치였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 대부분 감옥에 갇혀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교단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의 심적인 고통도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송홍은 1930년 2월 8일 광주고보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교육혁신의 중요성과 민족교육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부디 잊지 말라는 고별시를 쓴다. 고별시는 다음과 같다.

教育吾曾叫革新 일찍이 내가 교육혁신을 부르짖어
一心二十二年春 한마음으로 22년을 보냈는데
今朝設與諸君別 오늘 아침 제군들과 이별하게 되니
無負江湖老病人 강호에 묻히게 되는 늙고 병든 이를 저버리지 말라

송홍은 광주고보를 떠난 후 서동의 초라한 자택을 ‘고분당(孤憤堂)’이라 이름 짓고, 해방이 될 때까지 칩거하면서 독서와 서예에 전념했다. 집 이름 고분당은 ‘외롭고 괴로운 사람이 사는 집’이란 뜻이니, 당시 송홍의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이 간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되찾자 송홍의 칩거도 끝이 난다. 송홍은 광주 서중학교 교단에 다시 서게 되었고, 광주의 대에서 한국사를 강



송홍 선생 무덤(나주시 남평면 우산리 뒷산)

의하기도 했다. 74세

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교단에 섰던 그는 해방 정국의 혼탁한 정치상을 지켜보면서 1949년 6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사후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1967년 광주일고 교정에 그의 동상을 세웠고, 1972년 그의 유고집 2권을 발간했고 1986년 나주군 남평면 우산리 뒷산 묘 앞에 그의 묘비가 세워진다.

송홍을 연구한 전 서울대학교 교수 민두기는 “그는 이론가라기보다는 실천가였으며, 애국애족으로 점철된 민족정신의 화신이자 위대한 스승이었으며,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재정립한 사학자였다.”고 평했다.

송홍은 일생을 민족을 위해 바친 지사요, 민족의 스승이었고 광주고보의 영원한 스승이다.

4. 2·8독립선언서를 지니고 귀국한 정광호

1919년 3월 10일, 광주천 작은 장터에서도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광주 3·1운동의 출발은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던 도쿄 유학생이 가져온 2·8독립선언서와 맞닿아 있다. 그 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와 장성에서 인쇄한 후 광주 3·1운동에 참여한 분이 바로 화순 출신의 정광호다. 정광호(鄭光好, 1895~1956)는 1895년 8월 화순군 능주면 읍내리에서 온 양 정씨 정대교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다.



정광호 선생

정광호는 광주로 이사한 후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고보부설 임시교원양성소에 입학한다. 양성소를 졸업한 후 그는 고향 능주의 능주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했지만, 「독립찬가」 등의 노래를 가르치는 등 학생들의 배일사상을 고취시켰다는 이유로 1916년 해임된다.

능주보통학교에서 해임된 정광호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메이지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한 후,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선다. 1919년 백관수, 김도연 등이 중심이 되어 2·8독립선언을 준비할 때, 그는 선언문의 등사, 동지 규합, 장소 물색, 국내와의 연락 등 막후에서 헌신했다.

2·8독립선언서 인쇄를 맡았던 그는 최팔용 외 10명이 서명한 2·8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1월 말 귀국한다. 2월 2일, 서울에서 유학중이던 광주 출신의 김범수와 최정두, 장성 출신의 박일구 등과 만나 2·8독립선언서를 국내에 배포키로 뜻을 모은 후 박일구의 처갓집인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김기형의 집에서 2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글로 된 독립선언서 약 600장과 일본어로 된 독립선언서 약 50장을 인쇄하였다. 최남선을 만난 후 3·1운동 계획을 알게 된 그는 다시 광주에 내려와 한길상, 최한영, 강석봉 등 당시 청년 집단이었던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과 접촉하면서 광주 거사를 준비한 후, 3월 10일 작은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천여 명이 참여한 광주 3·1운동의 주모자들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자 체포를 피해 인천에서 밀항선을 타고 상하이로 망명한다. 상하이에 도착한 정광호가 찾아간 곳은 임시정부였다. 그는 임시정부에서 국내외의 비밀결사 조직들과 연락을 담당하는 교통부 참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1923년 1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그는 함평 출신의 김철 등과 함께 전라도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참석했다. 여기서 그는 '대표자격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과거문제조사위원회에 참여했으며, 국민대표자회의 선서 및 선언문을 기초할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정광호는 상하이에서 청년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였다. 1924년 2월경에는 상해 교민단 학무위원회 대표로 김두봉과 함께 활동했으며, 그해 9월경에는 한국유학생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1925년 2월 21일에는 여운형과 함께 신한청년당의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1927년 7월경에는 상하이에서 안창호 등 10여 명과 함께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조직해 그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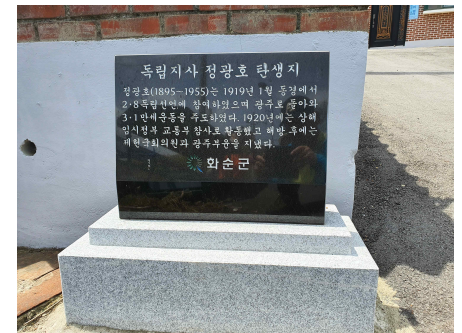
해방 이후 정광호는 김성수, 송진우, 김병로 등과 한국민주당에 참여하여 한민당의 중앙집행위원 겸 조직부장이 된다. 그리고 1947년 6월 27일 미군정당국의 발령에 의해 광주부윤(현 광주시장)에 부임한다. 그 후 그는 한민당의 공천을 받아 1948년 좌익과 남북협상파들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5·10선거에 광주에서 단독 출마하

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1948년 5월 31일에 열린 개원국회에서 그는 15명의 '국회법 기초위원'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그의 국회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반민특위활동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는 1948년 8월 19일 제44차 제헌의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고 확실한 근거를 수집해서 개별적으로 특정인을 친일파로 지정해서 숙청을 건의하자"라는 긴급동의를 하며 친일파 척결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의 발언은 그가 속한 한민당의 소극적인 친일파 척결 의지와는 다른 것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때의 그의 사상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광호는 2년 뒤인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대신 경기도 양주군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한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서울에 있던 그는 인민군에게 체포된다. 그 후 그는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군사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 일명 '모시기 공작(군사위원회 8호 결정)'에 따라 납북되고 만다.

정광호, 그는 2·8독립선언서를 지니고 귀국한 후 광주 3·1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이었다. 이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교통국 참사, 국민대표회의 전라도 대표 등으로 활약했다. 해방 정국에서 광주시장으로, 그리고 광주를 대표하는 제헌의원이



정광호 선생 생가터비

되어 반민특위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한동안 잊혀졌고, 광주광역시청의 시장 사진에서도 누락되어 있었다. 1989년 3·1절을 맞아 그는 다시 명예를 되찾는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을 인정하여 건국포장을, 1990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20년 3월 4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빈칸이던 3대 시장 자리에 '제3대 정광호 광주시장'의 사진을 걸었다.



정광호 위패(현충원)

그가 태어난 능주면 읍내리에는 '정광호 생가터' 비가 있고, 서울 현충원에는 '애국지사 정광호 영위'라고 쓰인 위패가 모셔져 있다.

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 홍남순

국립 5·18민주묘역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묻혀 있다.

5·18묘역에 묻힌 분 중 '자유와 민주, 정의의 등불을 밝힌 그를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렀다.' 라고 새겨져 있는 1묘역 5~76번이라는 번호를 달고 있는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의 1세대로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 홍남순 변호사다.



홍남순 선생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홍남순(洪南淳, 1912~2006)은 2012년 7월 20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7년 월곡의숙과 화순군 능주 공립보통학교(1928~1930)를 졸업하였다. 그는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19세에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카야마 시립상공학교(1933~1937)를 졸업한다. 귀국한 후 37세 되던 1948년 10월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하였고, 1953년 6월 광주시 궁동 자택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57년 광주 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1960년 광주 고등법원 판사, 1961년 대전 지방법원강경지원장, 1962년 광주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부 통치 시기인 1963년, 광주시 궁동 자택에서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 반대 발언으로 문제가 된 전 국회의원 유옥우 사건을 필두로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사건 등을 비롯한 31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아 변론하였고, 반독재 투쟁을 펼치다 구금된 민주인사들을 위하여 60건 이상의 무료 변론을 맡아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추앙받고 있다.

더불어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시위, 6·8선거 반대 시위, 3선 개

현 반대 시위 등 군부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일흔의 나이에 시민학살에 항의하는 뜻으로 ‘죽음의 행진’을 펼치다 신군부에 체포되어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1년 7개월의 옥고 끝에 1981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1984년 광주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1985년 5·18광주민주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1986년 전남민주회복국민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1990년 홍남순은 호남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대표 변호사가 되어 활동했다. 2001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5년 동안 투병했고 2006년 10월 14일 타계했다. 홍남순은 타계 이후 2019년 5·18 재심에서 기존의 무기징역의 선고를 얻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홍남순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한국가톨릭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정의부문 대상(1985), 대한변호사회의 인권상(1986), 국민훈장 무궁화장(1993)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도 인정받게 된다. 2004년 홍남순 평전인 『영원한 재야, 대인 홍남순』이 출간되었다.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209번지에 있는 홍남순 변호사가 어릴적 살던 생가터가 복원되어, 그의 생애와 어록 등 그와 관련된 기록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광주의 궁동 집은 많은 재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토론과 회의가 진행된 사랑방으로, 현재 광주민주항쟁 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남순 변호사가 살아생전 남긴 어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살만큼 살았다. 저기 있는 분들은 불의에 항거하고 올바르게

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나.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나? 다 석방해야 한다. 나는 범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1980. 12. 17. 육군 고등군법회의 최후진술 중에서-

“세상과 역사는 유동적이고 또 그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천합니다. 다수와 강자가 주장하는 지금의 정의가 나중에는 불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반대의 입장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중략) 당장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여 탄압으로 몰고가는 안됩니다.” - 안기부 광주 지부장과의 논쟁에서

“구인이득인 우하원(求仁而得 又何怨)” 옳은 일을 하려다 그것을 얻었으니 무슨 원이 있겠는가?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후 한 기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은가?’ 라고 한 질문에 대해 논어의 한 구절로 대신한 답변

“못 살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살아야 죽음에 이를 때에도 아무런 부끄럼이 없이 역사 앞에 받을 뺨을 수 있습니다.” - 평소 삶의 철학



복원된 홍남순 변호사 생가터

6. 신중국 건설 100대 영웅, 정율성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학교 특강에서 한·중 우의 인물로 9명을 언급했다. 그중 김구 주석과 함께 현대 인물로 언급된 분이 당시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정율성이었다. 2017년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한·중 간에 우의를 돈독히 한 인물로 역시 정율성을 언급하였다.



정율성과 그의 부인 정설송(왼쪽)

정율성은 중국인에게는 중국 인민군 군가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항일음악가로, ‘신중국 건설 100대 영웅’ 중 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의열단 단원·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일본과 치열하게 싸운 항일독립전사다.

어린 정율성, 음악에 눈을 뜨다.

치열한 항일독립전사 정율성(鄭律成, 1914~1976)은 1914년 광주에서 한학자 정해업과 최영은 사이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정율성의 호적 이름은 ‘부은’이었으나 ‘구모’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아버지는 한학을 배운 지식인으로 전라도 관찰부 공방서기직 대한 협회 광주지회 회원, 광주지역 신간회 간사,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정율성 뿐만 아니라 큰아들 효룡, 둘째 아들 충룡 등 모든 자녀를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으로 보낼 만큼 민족정신이 투철했다.

정율성 가족은 율성이 4살이던 1917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83

번지로 이사했다. 정율성이 이사해 살았던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와 석고리는 전남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 서편제의 시원이 될 만큼 유명한 능주 가락의 고향이다. 옛날부터 명창과 관기를 망라해 소리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고장으로, 곳곳에서 울리는 능주 가락은 어린 정율성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정율성은 1922년에 능주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1학년을 마친 이듬해 광주로 다시 이주하였다.

정율성은 큰 외삼촌인 최홍중 목사의 집에서 축음기를 통해 음악을 듣고 피아노를 치며 놀았고, 그가 활동하던 광주 YMCA, 양림교회, 양림동 선교사촌을 통해 서양음악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정율성의 작은 외삼촌은 최영옥 박사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학한 후 광주 서석병원 원장을 지냈으며 미군정 하에서 초대 전라남도 지사를 지냈다. 최영옥 박사의 아내이자 한국 YWCA 설립자 중 한 명인 김필례(金弼禮)는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일하며 교회를 빌려 때때로 음악회를 여는 등 정율성은 외가의 영향으로 음악에 친숙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 어린 정율성이 음악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다.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학하다

정율성은 1923년 다시 광주로 이주하였다. 그는 1928년 광주 숭일소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29년 3월 전주의 신흥학교에 입학하였다. 신흥학교에서도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은 발휘되었다. 그는 합창단에 들어가 동료 학생들에게 ‘내고향’, ‘조각달’, ‘고기잡이’, ‘까투리타령’ 등의 노래를 지도하였다.

1933년에 정율성의 셋째 형 의은이 중국 난징에 있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2기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자, 그는 전주 신흥학교를 중퇴하고 누나 정봉은과 함께 목포에서 평안

환(平安丸)을 타고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를 경유, 5월 13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정율성은 김원봉이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

1935년 봄, 간부학교 졸업 1년여 만에 김원봉은 정율성에게 남경의 고루전화국에 침투, 상해와 남경을 오가는 일본인들의 전화를 도청하여 직접 보고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일본어에 능숙한 그의 장점을 고려한 임무였다. 의열단 단원의 남경 고루전화국 침투는 남경정부와 협의하에 오래전부터 구상된 주요 사업이었다. 정율성은 매일 고루전화국 일본전화검사소에 침투하여 일본인들의 전화를 도청하여 김원봉에게 직접 보고했다.

고루전화국에 침투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첫 번째 임무 후 김원봉은 상해 유학 경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정율성에게 음악을 배우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간부학교 교가를 작곡한 정율성의 음악적 재능을 항일투쟁의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율성은 상해를 오가며 소련 레닌그라드음악원 출신 여교수 크리노와에게 성악, 작곡,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웠다. 정율성이 정식으로 음악을 배운 시기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 시기에 어릴적 이름인 '부은' 대신에 선율로써 조국의 독립을 성공하겠다는 의미에서 '율성'으로 개명했다.

팔보산 혁명공묘에 묻히다

1936년 정율성은 매형인 박건웅과 김성숙, 김산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선민족해방동맹(해맹)에 가입했다. 조선독립해방동맹은 계급투쟁보다는 민족해방을 앞세운 민족적 공산주의자들의 단체였다. 정율성은 1937년 해맹의 요청으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연안(延安)에 들어갔고, 노신예술학원, 중국인민항일군사정치대학 등에서 학습했다. 정율성은 1939년 1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문예

오락 일을 맡았으며, 「팔로군 행진곡」을 포함하여 8곡으로 구성된 '팔로군 대합창(八路軍大合唱)'을 작곡하였다. 팔로군 행진곡은 당시 팔로군에서 널리 애창되었으며 후일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채택되었다. 정율성은 1941년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정설송(丁雪松)을 만나 결혼하였다. 정설송은 이후 국무원 외사판공실 비서장, 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거쳐 중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네덜란드와 덴마크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초대 총리인 저우언라이의 양녀이기도 하다.

정율성은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연안에서 혁명음악가로 활동했지만, 1940년~1945년에는 태항산과 연안을 오가며 화북조선청년연합회, 화북조선독립동맹의 간부로 항일 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적후 무공대로 여러 차례 전투에 참가하였지만, 주 업무는 항일교육가로 전사들을 육성하는 일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정율성은 조선의용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조선인민군 구락부 부장, 조선인민군 협주단 단장, 조선음악대학 작곡부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조선해방 행진곡」, 「두만강」, 「동해어부」 등을 작곡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주은래(周恩來)의 요구로 다시 중국에 들어간 후 음악 활동에 전념했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창작 활동이 금지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마지막 창작열을 불태우던 정율성은 1976년 북경 근교에서 낚시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그는 지금 부인 정설송과 함께 북경 근교에 위치한 팔보산 혁명공묘에 묻혀 있다.

7. 민족경제론을 주창한 경제학자 박현채

1970~1980년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다.

그러한 시기에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더불어 「민족경제론」은 암울한 시대의 인식전환과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던 한줄기 빛이었다. 그 민족경제론을 주창한 경제학자가 바로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출신인 박현채(朴玄埰, 1934~1995)다.



민족경제론의 저자, 박현채

박현채는 연구실에만 머문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고, 경제사상가였으며, 개인의 안위가 아닌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은 참 지식인이었다. 당시 사회운동가들은 박현채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방향을 제시받곤 하였다.

박현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몇 년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재야에서 연구와 민주화의 실천에 온몸을 불사르며 살다 간 인물이었다. 그는 한결같은 열정으로 강의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글쓰기에 자신을 온전히 태웠다.

박현채는 1934년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에서 진보적 성향의 공무원이던 아버지 박경모와 어머니 오순희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비교적 넉넉한 집안인데다 타고난 재능을 지녔던 그는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님 덕분에 일찍이 광주로 유학하여 수창초등학교

를 졸업하였고, 1947년 광주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이모부인 능주의 신호현 등 진보적 성향의 친·인척들이 주변에 많았던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독서회에 가입하여 이념서적을 탐독하였다. 사상·이념적으로 조속했던 박현채는 8·15해방 후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을 열망하던 사회 환경과 당시 광주서중학교의 진보적인 선생님들과 학교 분위기 속에서 비범하게 성장하였고,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16세의 나이로 입산하여 빨치산에 가담했다. 그는 20세 미만의 소년들이 중심이 된 소년중대의 문화부 중대장으로 활동했는데, 훗날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조원제라는 ‘위대한 전사’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주로 백아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중 1951년 여름 대공세 때 포로가 되었다가, 아버지의 필사적인 구명 노력으로 석방되었다.

그 후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여 년간 재야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변혁운동의 과제로 삼고 이를 사회구조의 혁명이론으로 연결시켰다.

1964년 박현채는 인민혁명당 조직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이듬해 도예종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후에도 1979년 1980년 2차례 복역과 구금을 당했으며, 1989년 조선대학교에 자리 잡기 전까지 여러 대학을 돌며 경제학 강의를 했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하에서 한국 국민경제의 독자적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1970~80년대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회변혁운동에 앞장서는 실천적 경제이론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

특히 1960년대 민족 자주성과 민중적 삶의 회복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해 1970년대 유신 독재 시기의 민주화운동 및 1980년대 민중운동에 중요한 실천적 가치를 제공한 그의 저서 『민족경제론』

(1978)은 한국 경제사상사에 일대 충격을 준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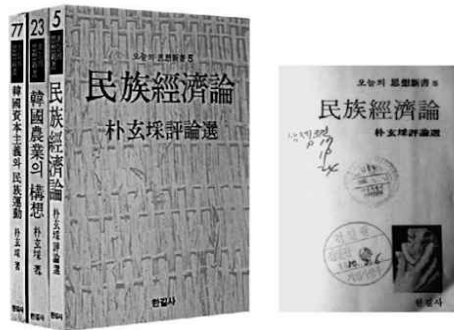
그의 민족경제론은 산업화 과정들의 문제들을 규명하고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한국적 정치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간·계급·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왜곡이 파행적인 산업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일관되게 지적하면서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제구조의 연장임을 역설했다.

한편, 1985년 계간 『창작과 비평』에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를 기고하여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989년, 이돈명 총장에 의해 조선대학교 교수로 임명된 뒤 강의와 집필에 몰두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1995년 8월 사망하였다.

저서로는 『민족경제론』(1978)을 비롯하여 『한국농업의 구상』(1981)·『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1984)·『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1989)·『독점자본론』 등이 있으며,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1959~64)와 국민경제연구소장(1980) 등을 지냈으며, 한국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제2회 단재학술상(1987)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박현채는 민족경제론을 주창한 걸출한 진보적 경제학자이자 민주화운동가였다. 암울했던 1980년대 그가 제기했던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4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는 듯 하다.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현채의 저서, 『민족경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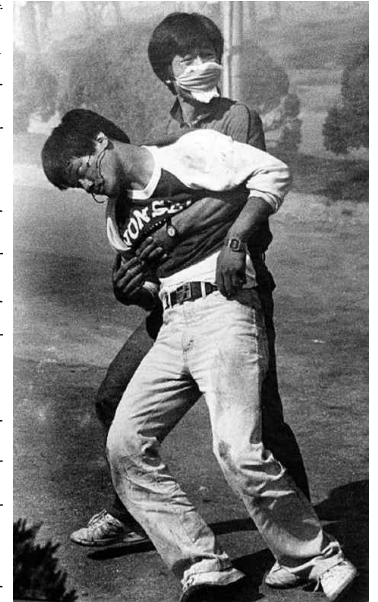
8. 6월 민주항쟁의 불꽃, 이한열

6월 민주항쟁의 불꽃 이한열(李韓烈, 1966~1987)은 1966년 8월 29일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화순에서 보냈으며, 광주로 유학하여 광주 동산초등학교와 동성중학교를 나왔다. 중학교 2학년 때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한다. 광주 진흥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다.

이한열이 대학에 입학했을 당시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5·18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 독재시절이었다. 당시의 시대정신은 군부독재 정권을 끝내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민주국가의 수립이었다.

광주 출신으로 5·18을 직접 목격했던 이한열은 군부독재와 민주주의 탄압에 분노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그는 ‘민족주의연구회’에서 시작하여 ‘만화사랑’이라는 동아리를 창설하여 자신의 고민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다.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사회 저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의 요구를 폭력으로 막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이 1987년 1월 13일 경찰에 불법 체포된 후 다음날인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왔고, 직



이한열

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 6월 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7년 단임의 간선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고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국민과 맞섰다. 이게 4·13 호헌조치다.

명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치인들이 서로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였지만, 군부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는 6월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뽑았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였다.

1987년 5월 연세대 교수와 대학생들이 연이어 즉각적인 호헌철폐를 주장하자, 전경들은 단식농성 중이던 학생대표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하였다. 이에 총학생회장 우상호는 ‘호헌 철폐와 민주화 실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학생들의 투쟁 열기는 고조되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를 하루 앞둔 6월 9일, 연세대에서는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 대회’가 개최되었다. 교문을 사이에 두고 ‘백골단’과 시위대가 공방을 나누는 가운데 충돌이 발생하였다.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 대회 당일 이한열은 용기와 의무감을 가지고 시위대 맨 앞줄에 나서는데, 이는 당시 학생 운동 용어로 ‘소크(soc)’라고 부르는 전위대 역할이었다. 학생과 전경 사이에서 대치하면서 학우들을 보호하고 시간을 버는 훗날 사수대를 말한다. 그는 최루탄을 공격적으로 쏘대는 전투경찰들을 피해 교문으로 들어가다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피격당하며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이종창이 그를 끌어안고 학교로 들어간다. 그는 계속해서 ‘뒤통수가 아파. 나 괜찮아?’를 중얼거렸고, 급히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오후 5시 30분 “내일 시청에 나가야 하는데...”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이때 이한열의 왼쪽 뇌 전체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사망하였다.

이한열이 대낮에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함께 전두환 정권의 잔인성에 대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일게 되었고, 이는 곧 6월 항쟁과 6·29선언의 도화선이 되었다.

6월 10일, 본격적인 민주항쟁이 시작되었다. 학생만이 아니라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속칭 ‘벡타이 부대’가 대거 참여하였다.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시내 차량의 모든 경적을 제거하고 수도권 전차는 시내구간을 무정차 통과시키며 단축수업, 조기퇴근 등 수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전두환 군부정권에 맞서 국민들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10월 26일 전국 37개의 도시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 여명이 밤늦게까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격려한 시위를 벌였다. 이에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의 의지를 밝히는 특별선언을 하게 된다. 6·29선언이었다. 이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이한열 열사의 묘비



이한열 열사 영결식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2월 16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은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민주 국민장’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연세대학교 본관에서 신촌로터리, 서울시청 앞, 광주 금남로, 광주 망월동 민주 묘역 순으로 이동되며 진행되었다. 추모 인파는 서울 100만, 광주 50만 등 전국적으로 총 160만 명이었다고 한다.

Ⅲ. 화순이 품은 역사 유적

1. 화순 항일의병 유적, 쌍산의소

1907년 4월 22일, 양회일이 이끈 화순 의병은 능주 관아와 주재소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린다. 이어 화순 관아를 비롯하여 주사청(主事廳), 우편소, 경무서, 일본인 상가 등을 공격한다. 다음 목표는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였다. 광주로 진격하기 위해 너릿재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전개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의병들은 화순과 동북 사이의 도마치 아래 민가로 이동하여 밤을 지낸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군이 들어닥치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양회일을 의병장으로 한 화순 의병이 능주, 화순, 너릿재, 도마치 등에서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200여 의병을 모아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었던 의병의 배후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배후 거점, 즉 항일의병 유적이 2007년 사적 제485호로 지정된 쌍산의소(雙山義所)다. 이곳 쌍산의소는 이후 보성 출신 이백래가 주축이 된 호남창의소와 평민출신 의병장으로 이름을 날린 보성 출신 안규홍이 이끈 의병부대의 주요 거점이기도 했다.

한말 호남은 최대 의병항쟁지였다. 1909년의 경우 전투 횟수의 47.2%, 참여 의병수의 60.0%가 호남에서 일어났고 호남 사람이 참여했다. 참여 인원 60% 중 광주·전남인이 45%였다. 한말 호남 의병의 거점이 남도 땅 곳곳에 남아 있는 이유다. 그중 하나가 화순군 이양면 증리, 계당산(중조산이라고 불림) 자락에 위치한 쌍산의소다. 예로부터 계당산 일대는 쌍산, 쌍봉 또는 쌍치라 불리었다. 양회일 의병의 의진을 ‘쌍산의소’라 부른 이유다.

쌍산의소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다. 쌍봉사 입구에서 오른쪽 화순 방향으로 조금 오르다 보면 오른쪽 산자락에 길이 하나 있고

입구에 ‘쌍산의소 4킬로미터’라 써진 풋말이 서 있다. 길은 시멘트 길과 비포장이지만 군데군데 패여 있어 승용차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의병 발의지이자 의병의 지휘소가 있었던 마을이 증동 마을이다. 화순은 물론 보성·정읍·남원·구례·순창 등지에서 의병에 투신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자 조그마한 마을 증동은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계당산 골짜기에 막사를 세워 이들을 수용한다. 의병들의 막사가 있었던 곳, 그곳이 쌍산의소다.

쌍산의소 주변에는 의병 발의지, 의병들의 훈련장소(이양면 증리산 12일대) 및 막사 터 뿐 아니라 무기를 제조했던 대장간 터(이양면 증리산33), 무기 제조를 위해 유향을 쌓아두었다는 유향굴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유향굴은 증동 마을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왼편 날개자락에 위치한다. 현재는 굴 내부가 무너져 확인할 수 없지만, 이곳에 유향을 쌓아놓고 무기 제조시 꺼내어 사용했다고 한다.

증동 마을의 오른쪽 능선을 타고 돌아 약 500미터쯤 가면 무기제작 장소였던 대장간 터가 나온다. 이곳에는 높이 1미터 길이 7미터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는데 건물지로 추정된다. 주변에는 쇠물덩어리(슬레그)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200여 의병들이 무장한 화승총이나 천보총, 탄환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쌍산의소의 막사터는 증동 마을 뒷산 너머에 위치한다. 0.5~1미터 정도의 높이로 돌담 흔적과 원형 또는 사각형의 크고 작은 석축 막사터 20여기가 남아 있다. 막사로 이용된 석축 바깥으로는 길다란 석축이 수백미터 잇대어 있다. 일종의 막사와 훈련장을 보호하는 의병성으로 적군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곁에 깨끗한 개울물이 흐른다. 의병들은 이 물로 타는 목을 축이고, 주린배를 채웠을 뿐 아니라 취사에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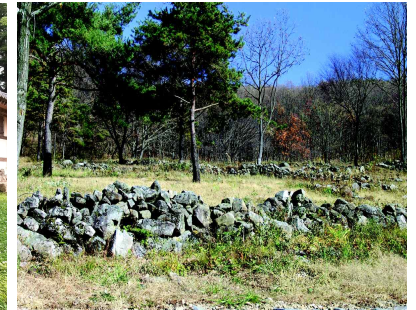
쌍산의소는 이와 같은 입지적 조건 때문에 남도의 후기 의병을

주도했던 안규홍·임창모·안찬재 등의 의병부대들이 늘 이용하던 장소였다. 물론 이곳은 6·25전쟁 당시 빨치산의 아지트이기도 했다.

일제는 의병 뿐만 아니라 의병들의 거점이나 흔적마저도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산속 깊숙이 위치한 쌍산의소는 막사 터나 군사 훈련장, 무기제작지인 대장간 터, 유향굴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말 의병의 진지나 거점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현재의 쌍산의소의 의병 유적은 의병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이 아닐 수 없다.



쌍산의소 의병 발의지



쌍산의소 막사 및 훈련장

2. 국보 제57호 철감선사 승탑을 품은 쌍봉사 최고의 걸작,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극락정토에서 노래하는 극락조, 가릉빈가

우리나라에 승탑(僧塔)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신라 말 유행한 선종 불교와 관련이 깊다.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한 선종(禪宗)은 깨우침을 인도해주는 스승이나 정신적 지주인 멘토(mentor)를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선종 불교에서는 깨우침을 안내해주는 스승을 부처님처럼 소중하게 모셨고, 스승이 입적하면 화장 후 사리(舍利)라 불리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모아 멋진 조형물 속에 안치했는데, 이를 승탑이라고 한다.

신라말 고려 시대의 멋쟁이 승탑 대부분은 팔각원당형이다. 팔각형인데 ‘둥근 집’이란 뜻의 ‘원당(圓堂)’이 붙은 것은, 팔각형이 원형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실린 국보 제57호인 화순 쌍봉사의 철감선사 승탑도 당근 팔각원당형이다. 왜 철감선사 승탑이 모든 승탑을 제치고 교과서에 실렸는지, 왜 최고의 걸작으로 불리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철감선사 승탑의 높이는 2.3미터이며, 재료는 가장 단단해서 작업하기 어려운 화강암이다. 탑은 받침대의 아랫돌, 받침대의 중간돌과 윗돌, 몸돌, 지붕돌 등 총 4매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받침돌과 몸돌, 지붕돌에는 각각 구름, 사자, 가릉빈가, 사천왕, 비천 등의 문양이 돌출새김 되어 있다.

각 부분의 문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받침대의 아랫돌에는 꿈틀거리는 구름 문양 속에 용이 새겨져 있고, 구름 위에는 8마리의 사자가 다양한 포즈를 취한 채 앉아 있다. 부처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라 부르듯, 불교와 사자는 인연이 깊다. 불교 관련 조형물에 새겨진 사자는 주로 불법을 수호하는 의미를 지닌다. 화엄사의 4사자 3층 석탑(국보 제35호)이나 광주 박물관 로비에 있는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제103호)의 몸돌을 사자가 받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찰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사천왕상도 마찬가지다.

승탑에서 가장 잘록한 허리 부분과 연꽃을 하늘로 향해 새긴 양련(仰蓮) 위의 안상(眼象)에는 가릉빈가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돌의 모양이 다소 다르다. 아래 가릉빈가는 몸 전체가 새이고 얼굴만 사람이지만, 위의 가릉빈가는 하반신만 새이고 상반신은 사람이다. 가릉빈가는 극락조다. 극락정토에서 노래하는 극락조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극락정토의 설산에 산다는 상상의 새다. 따라서 위에 새겨진 가릉빈가의 모습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가

릉빈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며, 춤을 잘 춘다고 하여 호성조(好聲鳥)·묘음조(妙音鳥)·미음조(美音鳥) 또는 선조(仙鳥)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비파, 피리, 통소, 바라, 장고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마치 주인공 철감선사가 극락정토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는 것 같다.

불교 관련 유물에는 코끼리 눈을 형상화한 안상이 많다. 이는 석가모니가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외치고 세상에 태어날 때 코끼리를 타고 계셨던 것과 관련이 있다.

막새기와에 새긴 여덟 장 꽃잎

승탑의 핵심은 주인공의 사리를 모신 몸돌(塔身)이다. 몸돌의 남쪽과 북쪽 면에 문고리가 달린 문비(門扉, 문짝)가 새겨져 있고, 앞문과 뒷문의 좌우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천왕이, 나머지 두면은 하늘을 나는 비천(飛天)이 새겨져 있다. 갑옷 입은 험상궂은 사나이들, 그들이 1,200년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문비 안에 들어 있는 승탑의 주인공 철감선사의 유골이다. 몸돌의 사천왕과 비천은 옷 매듭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든다.

옥개석(屋蓋石)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붕돌은 최고 수준의 조각 솜씨가 발휘되어 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낙수면은 기왓골이 깊고, 각각의 기와 끝은 막새기와가, 처마에는 서까래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지름 2센티에 불과한 손톱 크기의 막새기와에는 여덟 장의 연꽃문양이 정밀하게 새겨져 있다. 승탑에 새겨진 문양 중 압권이다. 지붕돌은 전체가 하나의 돌이기 때문에 석공이 막새기와 속 연꽃 하나만 잘 못 건드려도 승탑은 망가지고 만다. 승탑의 주인공 철감선사도 부처지만, 이 멋진 작품을 남긴 석공도 부처가 아니었을까?

수년 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철감선사 승탑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뛰어넘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품인 ‘피에타’, ‘다비드’ 등은 조각하기 비교적 쉬운 대리석인 반면, 철감선사 승탑은 가장 조각하기 어려운 화강암이다. 규모 자체도 철감선사 승탑이 뒤지지 않는다. 화강암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석공의 깊은 신앙심까지 느껴지는, 당대 승탑 가운데 최대의 걸작이 아닐 수 없다. 철감선사 승탑이 모든 승탑을 제치고 교과서에 실린 이유다.

그런데 오늘 최고의 걸작 철감선사 승탑은 안타까움을 품은 채 서 있다. 지붕돌 위 상륜부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 멋진 지붕돌마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도굴꾼들이 승탑 안에 넣어 둔 금·은으로 제작된 사리장치를 훔치기 위해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1,200년을 버텨 온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졌다.

철감선사 승탑의 주인공, 도운

승탑의 주인공 철감선사 도운(798~868년)은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로 황해도 봉산 출신이다. 법명은 도운이며 시호는 철감, 속성은 박씨다. 철감선사의 '철감(澈鑿)'은 그가 죽은 뒤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경문왕이 내린 시호다.

그의 어머니가 신이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우는 태몽을 꾸고 낳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학과 봉황의 자태였더니, 떡잎부터 달랐던 것 같다.

18세가 되던 헌덕왕 7년(815)에 화엄종 사찰로 유명한 김제 모악산의 귀신사(鬼神寺)에 들어가 승려가 된다. 그는 귀신사에서 10년 동안 화엄학을 공부하였지만, 화엄이 심인(心印)을 전하는 선(禪)보다 못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당나라 유학이었다.

헌덕왕 17년(825)에 당에 건너간 철감선사 도운은 보원선사(普願, 748~835)의 제자가 되어 선종을 배우고 법통을 전수받는다. 28세 되던 해였다. 첫눈에 큰 그릇임을 알아본 보원이 도운에게 심인을 전한 뒤, "그의 법이 신라로 간다"며 탄식했다고 한다.

그는 스승인 보원선사 사후 13년을 더 당에 머물다가, 문성왕 9년(847)에 귀국한다. 귀국 후 금강산 장단사에 잠시 머물다 화순 쌍봉사를 창건한다. 쌍봉사에 머물렀던 10여 년간 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교세를 떨친 후 경문왕 8년(868)에 입적한다.

쌍봉사에 머물던 기간에 9산선문의 하나인 사자산문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의 종파적 전통을 이어받은 징효(澄曉, 831~895)가 지금의 법흥사인 영월의 흥녕사에서 사자산문을 연다. 생전에 그의 덕망이 세상에 널리 퍼지자, 경문왕은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스승으로 삼았고, 그가 죽자 철감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철감선사 도운은 무등산 자락의 증심사를 개창 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화순 쌍봉사와 무등산 증심사를 개창, 우리 지역 남도에 선풍을 일으킨 철감선사 도운은 세계 최고급 걸작이 된 그의 무덤인 승탑과 함께 남도인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길이 남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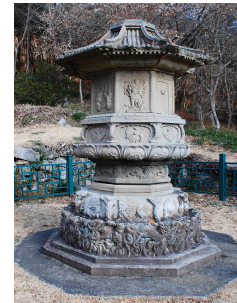
□☆관련 사진



-쌍봉사 전경



-불에 타기 전 대웅전 모습



-철감선사 승탑(국보 제57호)



-철감선사사비(보물 제170호)



-철감선사 승탑 수막새에 새긴 연꽃

3. 지강 양한묵 선생 추모비



지강 양한묵선생 기념비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남산공원 인근에는 호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옥사한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지강 양한묵 선생을 추모하고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양한묵선생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다.

지강 양한묵 선생의 추모비는 처음 1965년 3월 화순군청 앞 광장에 건립되었다. 1984년 남산공원에 있는 군민회관 뒤편으로 이전하였다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 및 양한묵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추모비에는 태극기의 빨강과 파랑으로 음양을 표현한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고 왼쪽 아래에 양한묵 선생의 얼굴, 오른쪽에는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이다”라는 지강 선생이 재판받을때의 질문에 답한 어록이 새겨 있다. 추모비 바닥에는 박종화가 글을 짓고 김충현이 쓴 비문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득한 그 옛날에 단군 할배가 베푸신 거룩한 이 강산 우리들
면면히 이어받아 복된 나라 찬란하련만 외적에게 빼앗기는 등 아직

도 오롯하지 못하고 있다. 지강 양한묵 선생은 우리의 보국안민을 참으로 위하시어 삼일독립운동의 민족대표로 돌도 없는 가혹한 목숨을 옥중에 바쳐 평생을 제국주의 일본과 싸우시었다. 우리 겨레의 얼이시고 화순 고장의 빛이신 선생은 이미 가시었으나 영원히 살아 계시어 나아가는 겨레의 길을 더욱 밝혀주시고 우리는 늙고 젊은이는 선생을 우러러 길이길이 받드리. 박종화 짓고 김충현 쓰다.”

양한묵은 호남인으로는 유일하게 1919년 3·1운동 당시 천도교를 대표하는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린다.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어 가혹한 고문을 동반한 심문을 받았지만 선생은 민족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 선생은 경성지방법원 예심괘(豫審掛) 담당검사 나가시마 유조(永島雄藏)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문: 피고는 조선이 독립이 될 줄 아는가?
 답: 반드시 되리라는 생각은 없어도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조선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문: 금후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지금 강화회의에서도 민족자결이 제창됨으로써 일본정부의 원조로부터 자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번의 독립운동을 한 것이고, 금후도 기회만 있다면 할 생각이다. 그런데 나는 야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독립으로써 조국이 부흥된다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의 직책인 천도교의 포교에 종사할 것이다.

양한묵은 고문 후유증으로 1919년 5월 24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한다. 처음 그는 수철리 공동묘지(현 서울특별시 동구 금호동)에 묻힌다. 그 후 천도교단의 주선으로 1922년 5월 5일 현 위치인 화순군 화순읍 앵무마을 뒤 선산에 안장된다. 화순군 화순읍 앵무동길 산 126번지이다. 그의 무덤은 상석도 비도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다.

정부에서는 양한묵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

서하였다.



양한묵선생 무덤 (화순군 화순읍 앵무동길 산 126번지)



양한묵 선생의 유해 반장 보도 기사
 (<동아일보> 1923년 5월 5일자) <출처:국사편찬위원회>

4.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와 최경회를 모신 사당, 충의사

남강에 몸을 던지다

1592년 6월 이후 전국에서 봉기한 의병들의 활약으로 기세가 꺾인 왜군은 병력을 집중하여 어떻게든지 하삼도의 관문인 진주성을 손아귀에 넣으려 했지만, 공략하지 못한다. 진주성은 앞에 남강이 흐르고 후방 삼면은 험준한 형세로 돌담을 높이 쌓아올린 매우 견고한 성이다. 토요일도미히대요시는 전라도를 장악할 수 있는 관문이자, 교두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요충지가 바로 진주성이라 여기고 공격을 명한다.

1592년 10월 4일부터 2만의 왜군이 진주성을 공격했지만, 진주목사 김시민을 비롯한 3천 8백 명의 성 주민과 관군이 이를 격퇴시킨다. 이 전투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으로 불린 제 1차 진주성 대첩이다. 제 1차 진주성 대첩은 임진왜란 최초로 성을 지켜낸, 전라도로 진출하려던 왜군의 계획을 좌절시킨 귀중한 승리였다. 그러자 왜군은 전라도로 통하는 관문을 확보하고 제 1차 진주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10만의 병력을 집중하여 함안·의령을 차례로 점령하고 진주성을 공격한다. 당시 조정은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주성을 포기하라는 명을 내렸고, 도원수 권율과 경상도 의병장 광재우마저도 진주성에서 10만의 왜군을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반대한다.

조정이 포기하고 경상도 의병장 광재우마저 포기한 진주성을 지켜 낸 것은 김천일, 최경회, 고종후, 황진 등이 이끄는 3천 5백 명의 호남 의병들이었다. 1593년 7월 22일부터 시작된 제 2차 진주성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였다. 관군과 명군의 지원 없이 9일을 버텼지만 성이 무너지면서 중과부적으로 함락된다. 성이 함락되자 경상우도병마사 최경회는 “축석루의 세 장수는/ 한잔 술을 들이키며 강물을 가리키며 웃네/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는데/ 저 물결 흐르는 한 혼도 죽지 않으리” 라는 시를 남기고 남강에 몸을 던진다. 그의 나이 예순 둘이었다. 이 시 속의 세 장수는 김천일과 고경명의 장남인 복수 의병장 고종후, 최경회 자신을 가리킨다.

왜군은 진주성을 함락했지만 심한 손실을 입어 전라도 진출이 좌절된

다. 전라도 의병들이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낸 것이다.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

진주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몸을 던진 최경회(崔慶會, 1532~1593), 그는 화순 출신 의병장보다는 왜장을 껴안고 축석루에서 순절한 논개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다. 그는 중종27년(1532), 전남 능주(지금의 화순군)에서 최천부의 아들로 태어난다. 호는 일휴당, 본관은 해주다. 양응정·기대승 문하에서 수학 한 후 명종 22년(1567)에 문과에 급제,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사헌부 감찰, 무장 현감, 영암 군수, 호조 정랑을 거쳐 1587년 담양 부사를 역임한다. 담양 부사로 재직 중이던 선조 24년(1591)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화순으로 낙향, 시묘(侍墓, 부모의 상을 당해 3년간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삶)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김천일과 고경명이 1차 의병을 일으켰을 때 최경회는 어머니의 상중이었다. 그런데 의병장 고경명이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다. 고경명 휘하의 문흥헌은 최경회에게 달려와 호남 의병을 수습하여 거의할 것을 간청한다. 최경회와 고경명은 기대승 문하에서 함께 배운 동문이었다.

1592년 8월, 전라우의병장으로 추대된 최경회는 두 형인 경운, 경장과 함께 의병청을 설치하고 수천의 의병을 일으켜 남원을 거쳐 장수로 진출한다. 당시 전황은 이순신의 해전 승리와 각처의 의병 활동으로 왜군이 영남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 때 영남 의병장인 경남 우도병마사 김면과 경상우도순찰사 김성일이 호남의 의병장들에게 구원 요청을 해온다. 일부 의병장들은 “지금 적세가 사방에 뻗쳐 있는데 어찌 호남을 버리고 멀리 있는 영남을 구원하겠는가?” 라는 이유로 영남의 구원 요구를 반대한다. 그러나 최경회는 “호남도 우리 땅이요, 영남도 우리 땅이다. 의병장이 되어 어찌 멀고 가까움을 가려 영남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영남 출병을 결정한다.

이리하여 전라우의병은 10월 초 영남으로 진군하여 제 1차 진주성 전투를 외곽에서 지원하고 성주, 개령 지역을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운다. 당시 조정은 최경회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호남 일도와 영남우도 지방이 보존된 것은 다 그의 힘”이라고 격찬한다. 그리하여 그는 김면이 병으로 죽자 후임으로 경상우도병마사에 제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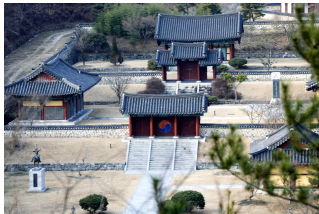
그의 순절 후 영조 29년(1753) 충의(忠毅)라는 시호가 내리고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능주의 포충사, 진주의 창렬사, 화순의 삼층각에 배향된다. 그리고 2003년에는 화순군 동면 백용리에 충의사가 건립된다. 충의사에는 사당을 비롯, 논개의 영정을 모신 의암영각과 기념관, 동상, 어록비 등이 있다.



충의사 경내에 세워진 최경희 장군의 기마상



충의사 의암영각의 논개



충의사 전경(화순군 동면 백용리)

5.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

운주사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불산(千佛山)에 있는 사찰로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다. 1984년부터 전남대박물관에 의한 네 번의 발굴조사 결과 10~1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해무리굽 청자조각과 순청자 접시 조각,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된다. 이는 실제 운주사가 고려 초에 건립되었을 것임을 추정하게 해준다.

1942년까지는 석불 213개와 석탑 30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에는 석불 90여개 석탑 21기가 남아 있다. 1980년 6월에 절 주변 일원이 사적 제312호로 지정되었다.

석탑 21기 중 보물로 지정된 것이 두 개다. 수문장 노릇을 하는 9층석탑과 원형다층석탑이 그것이다. 거지탑, 호떡탑, 향아리탑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형태도 파격이지만 ×자 문양, 꽃잎 문양 등 문양도 파격적이다. 이러한 파격은 부처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부처는 콧날만이 조금 도드라졌을 뿐 눈과 입이 선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고, 얼굴은 무표정에 가깝다.

운주사 대웅전 앞 산 정상에 누워있는 부처 와불(臥佛)도 유명하다. 와불은 미륵부처로 두 분인데 윗 부처가 조금 적다. 민중들은 누워있는 부처가 일어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희망의 전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희망이 반영된 소설이 황석영의 『장길산』이다. 운주사는 정말 대단한 문화원형의 보물창고가 아닐 수 없다.



운주사 와불



운주사 탑(거지탑)



운주사 부처

6. 능주 정율성 고향집과 정율성 교실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에게 화순 능주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고, 음악분야의 천재성을 키운 음악적 고향이다. 화순 능주는 서편제가 태동했던 곳으로 당시 ‘능주소리’로 불릴 정도였다. 능주소리를 기반으로 서편제 가락이 퍼져나가 보성소리를 이뤘으니, 능주는 명실상부한 풍류의 고장이며 음악의 고장이었다.

정율성이 1학년에 재학했던 능주공립학교(현 능주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관에 배속된 기생에게 국악이나 악기를 교육하던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소년 시절 신청 근처를 다니면서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그의 노래에 우리 민족의 가락이 곳곳에서 배어 있는 이유다.

또한 정율성이 능주초를 다니던 1920년대에 능주관아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능주관아 뜰에서는 항상 국악인들의 야외 공연이 이어졌다고 한다. 국창 임방울 또한 이곳에서 자주 공연을 했다고 전해진다. 정율성은 이처럼 주변에 산재한 자연스러운 음악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락을 운몸으로 체득했을 것이다.



정율성 고향집

화순군 능주면사무소에서 5분 거리에는 정율성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터(관영리 283번지)가 있다. 정율성의 아버지 정해업의 호적부를 보면 이곳 주소로 기록되어 있다. 2019년, 빈터만 남아 있던 정율성 집터를 ‘정율성 선생 고향집’ 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하였다. ‘정율성 선생 고향집’은 당시 일반적인 초가집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정율성의 삶과 가족, 음악과 함께한 1920년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마루에 앉으면 정율성 선생의 대표곡인 ‘연안송’이 흘러나온다. 집 곳곳에는 생전 사진들과 함께 선생의 항일운동시절의 모습과 사진을 연출한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다. 그가 탔던 말도 복원되어 올라타 사진도 찍을 수 있다.

화순 능주초등학교는 정율성이 재학했던 흔적을 보존하고, 후배들이 그의 애국·음악혼을 본받고 기릴 수 있도록 하였다. 능주초등학교 후문에 들어서면 스마트폰을 통해 정율성의 음악을 손쉽게 감상하며 걸을 수 있게 하였다. 길바닥에는 정율성 연대기를 시대별로 알기 쉽게 적어놓은 표지물이 있는데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율성의 흉상에 이르게 된다. 정율성의 외동딸인 정소제 여사는 흉상을 보고 “지금까지 본 아버지의 동상 중 가장 실재와 닮았다.”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이 재학하던 1922년~1923년 당시의 교



정율성 흉상(능주초등학교)

정율성 교실(능주초등학교)

실 풍경을 그대로 꾸민 ‘정율성 교실’이 있다. 1920년대 칠판과 학용품, 풍금 등 교실 환경을 선생의 재학 당시 사진 자료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1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남아 있으며, 밀랍으로 만든 정율성이 앉아 있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학교 건물의 옆면에는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타일을 잘라 붙인 가로 10m 세로 11m의 ‘정율성 벽화’도 제작되어 있다.



능주초등학교 정율성 벽화

‘항일 독립투사’이면서 근·현대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율성에게 화순 능주는 음악적 영감을 준 음악의 고향이다. 그가 어린 시절 화순군 능주면에서 보낸 시간은 5년 남짓이지만 그의 음악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으며 후에 음악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의 최선봉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혁명적 영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6. 5·18 당시 다이너마이트를 건네준, 화순탄광

화순에 탄광이 개발되다

화순탄광(화순광업소)은 화순군 동면 북암리 일대에 있는 무연탄 광산이다. 화순탄광은 1905년 박현경이 이 지역의 광업권을 등록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를 매입하여 중연탄광과 남선탄광으로 개발하였다. 화순탄광은 삼척, 영월, 음성탄광과 함께 채탄량이 많은 4대 탄광으로 꼽혔으며, 주로 서울 등 대도시의 가정용 연료뿐 아니라 광주지역 소재의 전남방직 공장의 연료로 공급되어 면직 화순광업소 물 생산에도 영향을 줄 만큼 비중이 컸다.



미군정 당시 화순탄광에는 광부 1,700여명이 일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000여 명이 화순탄광에 의존해 생활했다. 하지만 미군정 초 광부들은 높은 식량 가격에 비해 저임금에 시달렸고, 식량 거래를 전적으로 자유 시장에 맡겼던 미군정의 초기 정책은 광부들의 생활고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에 1946년 2월 정책을 바꿔 식량 배급제를 부활시켰고, 이에 따라 광부들은 식량과 현금으로 임금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노동 강도에 비해 여전히 배급량이 적었고 임금도 낮았다. 이에 맞서 식량 배급량 확대, 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던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다이너마이트를 시민군에게 전달하여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게 한 의로운 장소이기도 했다.

광주를 지켜낸 화순탄광 다이내마이트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내가 피로 물들었다는 비보는 삽시간에 광주 인근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광주에서 20여 분 거리의 화순에는 18일 이후 벌어진 공수부대의 만행이 날날이 전해져 공분이 일기 시작한다.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던 21일 그 분노가 절정에 달하는데, 상황을 접한 화순 군민 2,000여 명이 화순군청과 화순경찰서 앞 사거리 등지에 모여들었다. 버스터미널 인근 시장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김밥을 준비하여 나눠먹었다.

이날 광주에서 벌어지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화순읍민들은 무기를 구하기 위해 화순을 찾은 시위대 트럭과 만난다. 돌멩이나 각목으로 버티던 시위대가 무장을 결단하고 광주에서 가까운 나주·화순·보성 등 타 지역의



화순군청 앞 5·18사적지 표지석

로 무기 공수에 나선 것이었다. 시위 차량에서 내린 청년들이 광주의 처참한 상황을 전달하며 무기 조달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시위대에 합세한 일부 화순읍민들은 함께 화순경찰서와 인근 파출소로 향해 75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다. 시위대가 시민군이 되는 순간이었다. 계엄군의 화순 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불안감에 자체 소집된 예비군들은 화순지역 청년들에게 총기를 나눠주었다. 총기를 지급 받았지만 실탄이 없었다. 총기를 지급 받은 이들은 실

탄을 구하기 위해 714예비군 관리대대를 찾았지만, 대대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 시위대 일부는 오후 9시경, 화순군 동면 운풍리 신운마을 앞길에서 대학생들이 탄 차량과 마주친다. 우연한 이 만남으로 시위대는 총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된다. 무기를 구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트럭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결합되지 않은 다이내마이트를 건네주었던 것이다. 5·18증언록에 의하면 당시 광주 분위기를 읽은 화순광업소 직원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다이내마이트를 내주었다고 한다.

다이내마이트가 시위대에게 전달되던 21일 밤 9시경 시위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성전씨와 당시 화순광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김영봉씨 등 13명이었다. 이들은 곧바로 신운마을 인근 가정집으로 들어가 다이내마이트 결합작업에 들어간다. 조립작업을 마친 뒤 이들은 다이내마이트를 광주로 운반하여 전남도청 지하실로 운반한다. 이때가 22일 아침 7시였다. 이들이 시민군에게 넘긴 화약은 2천 6백49상자로 8톤 트럭 7대 분량이었다.

화순탄광에서 전달받은 다이내마이트는 이후 27일까지 7일 동안 광주시민들을 지켜준다. 광주시민뿐만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5·18기간 동안 다이내마이트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원래 다이내마이트는 계엄군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위협 수단이었을 뿐,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이다.

화순광업소 입구에 5·18사적지 표석을 세우다

전남 화순군 동면 북암리 화순광업소 입구에는 5·18 당시 광주를 지켜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게 했던 화순광업소 소유 다이내마이트를 시민군들에게 넘겨준 사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5·18사적지 표석이 서 있다. 표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여기 화순광업소는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학살과 폭압에 항거하기 위해 이성전씨 등 화순군 출신 청년 13명이 5월 21일 9시께 8톤 트럭 7대에 화약 2천6백49상자와 뇌관 355개, 도화선 4천6백미터를 싣고 광주로 출발하여 이튿날인 22일 7시경 광주 시 지원동에 대기 중인 광주시민군측에 넘겨주게 한 5·18최대의 현장으로 바로 이 다이내마이트가 전남도청에 들어가자 계엄군은 혼비백산 광주 외곽으로 철수했다.



5·18 사적지 표시석(화순광업소 입구)



7. 한국전쟁 이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비극의 현장, 도암면 도장마을

한국전쟁 당시 좌익 세력의 근거지였던 화순은 1950년 7월 인민군이 점령해 9월 퇴각한 이후 10월부터 1952년 4월까지 1년 반 동안 빨치산과 군경 간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현장이다.

특히 무등산과 지리산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였던 화순 북면의 백아산(810m)은 인민유격대(빨치산) 전남총사령부가 주둔했으며, 백아산 기슭 용춘마을(북면 용곡리)에는 조선노동당



6·25 민간인 학살 추모탑

전남도당 본부가 들어서 있었다. 또 화순 남단 도암면에 있는 화학산(614m)은 영암, 장흥, 보성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천혜 요새로 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군이 주둔했을 만큼 산세가 험해 전남 동남부 지역 빨치산들의 중심지였다. 화순이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 중 하나였던 이유다.

호남지역 공비토벌에 나선 국군 제11사단은 백아산 고립 작전과 함께 화학산 빨치산 부대 소탕 작전도 함께 진행했다. 화학산 토벌 작전은 11사단 예하부대인 국군 제20연대와 9연대가 맡았다. 20연

대 1대대와 3대대는 도암면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9연대 2대대는 이양면과 청풍면에서 합동 작전을 펼쳤다.

1951년 3월17일(음력 2월10일), 도암면 수색 작전에 나선 국군 제 20연대 3대대는 해망산(359미터)을 넘어 도암면 도장 마을(도장리)에 도착한다. 도곡에서 작전 중이던 3대대는 전날 빨치산 간부들이 이곳 도장마을에 모여 회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작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군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 빨치산들은 이미 마을을 떠나 화학산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군인들은 마을 위쪽 해망산 기슭 도포배미 언덕으로 마을 주민들을 끌고 갔다. 군인들은 100여 명 이상 모인 도포배미 앞 논에서 군경 가족을 제외한 아이들과 노인, 여성 그리고 청장년 남성을 따로 분류해 줄을 세웠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논 바로 위 언덕에 기관총을 거치한 군인들은 남성 쪽을 바라보며 총구를 낮춘 뒤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10살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20여 명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 김범순 씨는 “거총 시켜서 그대로 난사했어. 정말 비참하게 죽었당께”라고 회고했다. 그는 “좌익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했는데 없으니깐 아무도 안 나왔고, 그래서 다 죽인 것이다.” 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도장마을 주민들은 학살이 있던 음력 2월 10일 합동위령제를 모시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화순 북면의 백아산은 무등산과 지리산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빨치산으로 불린 인민유격대 총사령부가 위치한 곳이다. 국군 11사단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백아산의 빨치산을 공격하기 위해 반군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없애버리는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을 썼다. 그 모든 피해는 힘없는 주민들의 몫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좌익으로 몰려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다. 학살이었다. 1951년 2월 10일 도곡면 도장마을에서 자행된 20여 명의 학살도 그 한 사례였다.

화순군은 2016년,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노인복지관 옆에 희생자 추모공원을 만들고, 희생자 추모탑을 건립했다. 그리고 추모탑 옆에 이유 없이 학살당한 화순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위패를 모시는 ‘위패봉안실(位牌奉安室)’이 마련되어 있다. 위치는 화순천 너머 나들이 노인복지관 옆이다.

희생자 추모탑 앞에는 두 개의 표지석이 서 있다. 한 표지석에는 다음 글이 새겨져 있다.

“한국전쟁 시기 화순지역에서는 좌익과 빨치산 그리고 군인과 경찰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1948년 여순사건 이후 군인과 경찰은 화순지역 산악지대의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동조자로 여겨 부당하게 처형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퇴각하던 군과 경찰은 평범한 주민들을 보도연맹원이라는 명목으로 예비 검속하여 법적 절차없이 집단 학살하였다. 그 뒤 화순지역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과 지방 좌익들은 우익인사와 군경가족을 보복 학살하였다. 인민군이 패퇴한 뒤 군과 경찰이 화순 산악지역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 잇따랐다.

무차별 연행된 주민들은 국군의 전쟁 공로 부풀리기의 희생자가 되었고, 화풀이 대상으로 살해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희생자들은 국군에 의해 처형당한 좌익분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고, 가족들은 혈육을 잃은 슬픔조차 숨기면서 오랫동안 억울한 세월을 살아야 했다.

양측에 의한 희생자 수는 5,000여 명이 넘는다. 그러나 오늘 위패

봉안소에는 500여 명의 위패만을 모시고 있다.

화순에 건립된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은 화순군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국전쟁 시 군인과 경찰,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희생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 추모탑에는 전쟁 시기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전 화순군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 있다.

화순의 희생자 추모탑은 한국전쟁 시 군인과 경찰,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함께 추모하는 탑으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해하고 협력하는 모범사례다.

한눈에 보는 화순의 독립·민주·통일의 길

